93

전폐적출술후 농흉의 외과적 치료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정 철현, 성 숙환, 김 주현

전폐적출술후 농흉은 흔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병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적절한 수술 시기및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.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84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22명의 전폐적출술후 농흉환자를 외과적으로 치료하였는데 이는 전체 전폐적출술 환자의 10.5%에 해당하였다. 환자의 평균연령은 47.1±36.2세이었고 남자에서 3.3배 호발하였다.

전폐적출술을 시행하게된 폐병변은 폐결핵이 7례(41.2%)로 가장 많았고, 악성종양 및 농흉이 각각 5례(29.4%)씩 있었다.

전폐적출술후 농흉이 진단된 기간은 술후 7일에서 23년까지로 평균 44.7±81.1 개월이었다. 농흉이 진단되면 흉관 삽입술로 배액 및 세균배양검사를 하였으며 배양된 균의 종류는 S. aureus가 4례 pseudomonas, enterobacter, enterococcus 가 각각 3례씩 있었고 2가지 이상 균이 검출된 예도 4례있었다. 이들중 기관지 내시경 및 수술소견상 기관흉막루가 관찰된 예는 4례있었다.

수술은 Eloesser 씨 술식이 10례(58.8%), Eloesser 씨 술식후 Clagett 씨 술식을 시행했던 예와 기관누출부재 봉합후 근육판 전위 및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예가 각각 3례씩 있었다.

술후 평균 재원기간은 23.3±12.8일 이었고 2례의 병원 사망례와 1예의 장기 사망례가 발생하였는데 병원사망은 각각 패혈증 및 대동맥루에 의한 출혈에 의하였다.